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1. 겨자씨-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것의 대표적인 상징, 표본으로 사용되었음.

2. 겨자씨 나무-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람

3. 본문의 초점

(1)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번성되는가?에 대한 기별에 그 초점을 맞추었음. 작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크게 번성하는 것, 흥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2)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이유: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맺고 또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또 번져서 1000 배, 10000 배의 수확을 거두기 때문이다.

a.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유력하여 혼과 영혼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니..” 히 4:12 절

b.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미미한 것 같으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

(3)말씀의 생명, 능력과 접하게 해 주는 것은 믿음이다.

a. 상식이 아니다. 믿음이다.

b. 감정이 아니다. 믿음이다.

“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 장 20 절